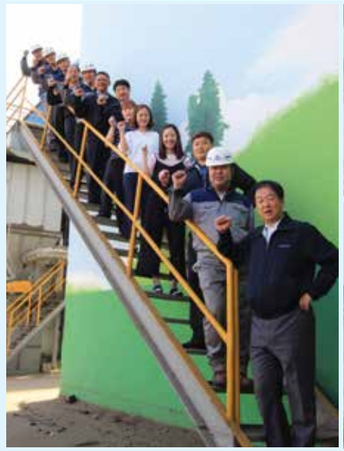
SAMPYO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시기를 맞이하기에 앞서
고객의 마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신용과 겸손의 미덕으로
남은 한해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더 힘차게 정진하겠습니다.

(주)삼표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5층 Tel) 02-460-7111 Fax) 02-464-0489

삼표애 | 2016 AUTUMN

SAMPYO

www.sampyo.co.kr

삼표愛

VOL.52
AUTUMN. 2016

SAMPYO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과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NEW LEADER, RECREATE, SAMPYO

〈삼표愛〉는 삼표그룹의 기업 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는 사내보입니다.

HOT! 이슈 04
물류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성공열쇠 08
삼표는 영원한 나의 동반자입니다
(주)삼표산업 홍성원 대표이사

현장 속으로 10
도시 안에서 맥(脈)을 찾다
(주)경한 슈레더사업소

소개합니다 14
Under the Sea! 천상의 아름다움을
물속에서 찾는 스킨스쿠버에 대한 상식 몇 개
삼표동양시멘트 품질팀 김용수 주임

오늘은 내가 쏜다 16
삼표시멘트의 고객 서비스와
좋은 인연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발견 18
대전사람 사로잡은 그 맛
(주)유니콘 대전영업과 조영준 차장, 민경환 대리

포토 이벤트 20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일상 속 '찰나의 순간'

건강 100세 22
친하게 지내자, 비타민

지식 通 24
한글 반포 570돌,
꼭 기억해야 할 한글 이야기

트렌드를 말하다 26
전기차 언제 구입할까?

여행을 떠나요 28
망망대해 한가운데
아름답고 낭만적인 울릉도!

SAMPYO NEWS 32
삼표 역량강화 워크숍,
감사인 역량 성장 계기 마련 外

열린 편집실 36
독자 퀴즈

사우 동정 37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www.sampyo.co.kr (주)삼표 사보 '삼표愛'

2016년 가을호(Vol.52) 계간 비매품 • 발행처 (주)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5층
• 전화 02-460-7111 • 발행일 2016년 11월 18일
• 디자인 편집디자인실 외곽 02-3447-7601 • 인쇄 나인 02-2278-0773

글. 삼표 물류기획팀 진장현 과장 사진. 삼표동양시멘트 해운관리팀 이준철 사원

물류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유진호 취항식과 명명식

지난 10월 10일, 강원도 삼척항에서는 새로 건조된 선박 한 척이 눈길을 끌었다. '유진호' 삼표와 삼표동양시멘트가 함께 투자해 구매한 첫 번째 선박이다. 이날 진행된 유진호의 취항식과 명명식은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삼표그룹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유진호는 추위가 매서웠던 올해 2월, 일본에서 구매한 이후, 뜨거웠던 여름 내내 목포에서 수리와 개조 과정을 마쳤다. 약 7개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새 단장을 마친 유진호는 이제 드넓은 바다를 누비며 삼표동양시멘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01

'유진호'...특별한 '첫 만남'을 기록하며

가을 하늘이 유난히도 높았던 10월 10일, 삼척항 22번 선석은 취항식과 명명식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취항식은 유진호의 무사고 순항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선박의 성공적인 개조공사와 취항식 준비에 힘써준 조선소, 설계업체, 전기공사업체, 그리고 내부 임직원에 대한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진호의 취항과 명명을 기념하기 위해 '최병길' 삼표동양시멘트(주) 대표이사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이날 최병길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삼표동양시멘트가 지금까지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했던 모든 임직원의 하나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더불어 앞으로 유진호와 함께할 신설법인 삼표해운 임직원들에게는 '물류 역량의 전문성 집중'과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상시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통해 변화에

02

03

01 유진호가 선박 개조를 마치고 삼척항에 첫 항차를 수행하기 위해 입항하고 있다.

02 삼척공장 게스트하우스에서 유진호 취항식 및 명명식을 기념하기 위해 (왼쪽부터) 정대현 부사장, 최병길 대표, 이정수 사장이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과 건배사 및 축배를 들고 있다.

03 최병길 대표이사가 허병식 선장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대처할 수 있는 체질 개선' 등을 당부했다. 선박 설계업체의 축사에 이어 삼표동양시멘트의 첫 번째 선박 명명식이 진행됐다. 선명(船名)제막과 폭죽 점화, 샴페인 깨트리기 등 웅장하고 화려한 이벤트를 선보인 선박 명명식은 새로운 선박의 탄생을 알리고 안전운항의 기원을 참석자들에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정대현 부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유진호가 탄생하기까지 함께 나누었던 땀과 노력 그리고 열정을 떠올리며 힘찬 박수와 환호로써 서로를 아낌없이 격려했다.

고진(苦盡)을 보내고 감래(甘來)를 기다리다

2016년 여름의 무더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록을 세우고 지나갔지만 유진호의 개조 작업을 진행했던 우리 직원들은 그날의 더위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150년 만의 폭염이라 하니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열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무더웠던 여름 땡볕 아래 선박 개조 작업은 위험천만 그 자체였다. 에어컨도 설치할 수 없는 야외에서 뜨거운 철판 위에 서 있노라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니 말이다. 그러나 개조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직원들은 각자의 건강을 챙기기보다 유진호의 개조 작업을 정한 시일 내에 끝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오자, 저마다의 노력 끝에 개조를 완성했고, 무사히 취항식을 마칠 수 있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했다. 앞으로 유진호와 함께 펼쳐 나갈 삼표그룹의 해운물류가 우리에게 더 큰 기대감을 주는 이유일 것이다.

01 최병길 대표이사가 유진호 취항식 및 명명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기념사에서 물류역량 전문성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운영 등을 언급했다.

02 (왼쪽부터) 서인태 선원노조위원장, 김은석 사무기술직 노조위원장, 박재봉 생산직 노조위원장, 건양선박설계 대표이사 정길, 문창조선 대표이사 김진문, 충무전기 공업사 대표이사 이승규, 삼표동양시멘트 김재실 감사, 이정수 부사장, 최병길 대표이사, 정대현 부사장, 남병규 부사장, 이성연 부사장, 이종인 부사장, 강원도환동해본부 삼척해양사무소 김명섭 소장, 정진호 상무, 허병식 선장이 취항식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을 준비하고 있다.

물류업계의 새로운 강자, 삼표해운

시멘트 산업은 원료 지향성 산업으로, 주요 원료인 석회석 매장 지역 인근에 생산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충청북도와 강원도 지역에 석회석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어 메이저 양회사의 생산거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시멘트 산업에서 거래처와의 접점에 위치한 유통기지로의 제품 수송능력은 시멘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다.

현재, 강원 연안에 있는 시멘트 사의 선박 운송 비율은 76% 수준이고, 삼표동양시멘트의 해상수송 의존도는 90%에 육박한다. 따라서 해운 역량의 집중과 선박 용선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한 선박 부족 해소, 선박 운영 및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처럼 생산공장이 연안에 위치해 있는 한라시멘트는 보유 선박이 1척에 불과하다. 2017년 삼표그룹의 수도권과 충청권 판매 확대 전략에 발맞춰 삼표동양시멘트는 올해 대비 연간 100만 톤 이상의 판매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부 연안에 있는 선박 수송의 강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가운데 삼표해운은 삼표동양시멘트 산하 해운 전문기업을 지난 8일 1일 설립했다.

삼표해운은 해운 전문기업 설립 이전부터 선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2월, 일본에서 건조된 중고 화물선을 국내로 매입하고 목포에서 7개월간 개조해 시멘트 7천 톤을 선적할 수 있는 전용선으로 탈바꿈시켰다. 플라이애쉬(Fly-Ash)의 선적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선박이다. 중고 선박 개조는 새로 건조된 선박에 비해 35%가량의 비용 절감과 1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유진호는 연간 60만 톤, 80항차를 운항하며 삼표그룹의 '해운 물류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시켜줄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빌딩 머티리얼(Building Material) No. 1 기업'으로서의 대외적 홍보 효과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첨병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삼표해운은 수도권과 충청권 시장 공략을 위해 추가 선박 도입에도 힘써왔다. 실제로 1만 톤급 규모의 선박 두 척을 올해 6월과 10월에 각각 매입해 현재 개조공사 중에 있으며 두 척 모두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삼표와 삼표동양시멘트의 물류를 책임지는 정진호 상무는 앞으로 삼표해운이 '종합 해상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삼표그룹의 육상 물류 운영 경험과 노하우(know-how)에 삼표동양시멘트의 해운역량을 더한다면 삼표그룹의 물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제 곧 다가올 2017년. 삼표해운의 유진호와 함께할 기대와 설렘 속에 우리는 또다시 다음 선박의 취항식과 명명식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유진호 허병식 선장 mini interview

삼표해운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대표이사와 모든 임직원, 그리고 무엇보다 승선하는 전체 선원 개개인의 열정과 책임감입니다. 시멘트 수급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염과 혹한을 이겨내며, 저와 함께 고된 선상 생활을 참고 견뎌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삼표해운은 머지않은 미래에 해운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삼표해운의 첫 번째 선박인 유진호 선장으로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유진호 취항 이후 2대의 선박이 투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유진호가 첫 번째여서 그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현재 해운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유진호 선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전 운항은 물론, 삼표동양시멘트의 물류 수급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들에게 강조하거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거친 바다를 누비는 선상 생활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듭니다. 선장인 저를 중심으로 선원들의 동료의식과 가족애가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원들에게 선박 운항과 물류 수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자의 건강을 챙길 것을 당부합니다. 선원들이 건강해야 돈독한 동료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바다 생활을 이겨냈던 것도 한배를 탄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글. 홍보팀 이소정 사원 사진. 홍성원 대표 제공

삼표는 영원한 나의 동반자입니다

삼표 최장기 근속
(주)삼표산업 홍성원 대표이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30년, 40년 이상 오래도록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74.04 강원탄광 입사
1979.01 육군 만기 전역
1979.02 (주)삼표제작소 복직
1998.11 (주)삼표제작소, (주)강원레일테크, 삼표강원중공업(주) 총괄 관리
2001.06 (주)삼표산업 감사·총무 업무
2005.03 RMC 군산공장 공장장
2008.10 남동레미콘(주) 대표이사
2010.05 (주)삼표산업 레미콘부문 관리, 수주 담당
2011.11 (주)삼표산업 레미콘부문 대표이사

지난 11월 8일, 입사한지 꼭 30일째 되는 홍보팀 이소정 신입사원이 그룹 최장기 근속자인 홍성원 (주)삼표산업 대표이사를 만났다. 홍 대표는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무려 39년을 재직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소정 사원의 나이의 곱절에 가까운 긴 시간이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눈으로 바라본 최장기 근속자는 어떤 모습일까. 입사 30일 차와 39년 차의 조금은 특별한 인터뷰 현장을 찾아가 보자.

홍성원 대표의 단란한 가족 사진

39년 근속, 사내 최장기 기록입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입사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9년이 지났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느새 강산이 4번이나 변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렇게 이소정 사원과 마주앉고 보니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강원탄광 시절도 생각나고 강원산업이 워크아웃으로 매각됐던 가슴 아픈 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삼표 최장기 근무 기록자'라고 생각하니 더욱 더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직장상사가 되고 싶군요.

최장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한데요.

오전 7시 20분이면 저는 항상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려면 체력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요. 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1km의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무리지만(웃음). 지금도 건강유지를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1974년에 입사하셨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입사하셨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홍성원 대표님에게 '삼표'란 무엇인가요?

장수를 흔히 맹장, 지장, 덕장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맹장(猛將)은 사나운 장수, 지장(智將智)은 이성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이끄는 장수, 덕장(德將)은 아래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맹장도 지장도 덕장도 아닌 복장(福將)이라고 불립니다. 한마디로 복이 있는 장군이라는 얘기지요. 삼표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수 태진아 씨의 노래 제목처럼 '영원한 나의 동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춘과 더불어 39년을 오로지 삼표맨으로 일해왔기에 저의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삼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회계팀으로 입사하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레미콘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현재의 레미콘부문에 입문하기 전까지 저의 전공은 관리·회계 업무였습니다. 2005년에 군산공장 공장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처음 R/C 사업부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어 많이 걱정했는데 운이 따라준 덕분에 군산공장 발령 1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 사업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영업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저와 같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나 현업에 있는 다른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 삼표에 입사했다면 삼표맨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삼표그룹은 '정(情)'이 있는 따뜻한 회사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이곳 삼표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30년, 40년 이상 오래도록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 있으면 해 뜨는 날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업무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수 없이 발생하겠지만, 항상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빕니다.

학창시절의 홍성원 대표(첫째줄 오른쪽)

글·사진. 홍보팀 장새롬 과장

도시 안에서 맥(脈)을 찾다

(주)경한 슈레더사업소

골드 러시(Gold Rush). 1850년 전후 금을 찾는 사람들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요즘 금을 캐고자 하는 사람은 광산이 아닌 도시 쓰레기장으로 달려간다. 왜 그럴까? 1톤의 금광석으로부터는 2~5g, 폐전자 기기에서는 20g의 금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 폐전자 기기의 전자회로기판에 금, 은, 백금 등 귀금속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땅을 파지 않아도 보다 효율적으로 금을 캘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광산이라는 용어는 도시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제품에서 자원을 얻는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전·디지털기기·자동차 등과 같은 제품에서 다양한 종류의 금속들을 회수하여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01

01 (주)경한 슈레더사업소의 전경.

02 (주)경한 슈레더사업소에서 매년 처리하는 폐차의 수는 15만 대로, 전국에서 처리되는 폐차의 약 25%에 해당한다.

02

폐자동차는 금맥(金脈)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폐기처분되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65만 대(39만 톤)에 이른다. 이중 경한 슈레더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연간 15만 대(9만 톤)이다. 한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승합·승용차의 25% 정도를 이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슈레더 사업'이란, 압축된 자동차 외장품을 파쇄하여 고철과 비철, 파쇄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다. 고철과 비철은 외부 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나머지는 전문업체에 돈을 주고 맡겨 폐기해야 한다. 되도록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고철과 비철로 분류해야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다.

난맥(亂脈)을 뚫어라!

(주)경한 슈레더사업소는 업계 최고(最古)다. 슈레더 장비는 대한민국 1호기다. 오래됐다는 것은 '설비가 노후화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의미도 된다. 슈레더 사업의 영업이익은 고철의 품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다 잘게 부수고, 잘 가려내는 것이 슈레더 업체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슈레더 설비는 여러 개의 해머를 한데 묶고 돌려 폐자동차를 잘게 조각내는 것이다. 해머라 하지만 사실상 칼날이라고 할 수 있다. 쇠와 쇠가 맞부딪히는 만큼 해머도 닳는다. 원심력을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시키는데, 한쪽 면이 닳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은 물론 파쇄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슈레더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해머를 한 번 뒤집어 다시 사용하는데, 이 사업장에서는 2번을 뒤집어 쓴다고 한다. "그거 교체하는 게 뭐가 어려운가 싶지만, 해머 교체에 반나절이나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을 고려한 최적기를 찾아내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한쪽 면이 얼마나 마모되었을 때 교체하면 좋은 지도 역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의 노하우라 할 수 있죠" (생산팀 장진우 과장)

슈레더 설비를 거쳐 나온 고철과 비철, 파쇄잔재물은 풍력과 자력, 사람 등의 힘으로 정교하게 선별된다. 2번에 걸친 파쇄와 9번에 걸친 선별 작업으로 고철과 비철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고철은 국내 제철회사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물질이 많은 경우 납품된 양을 차감한다. 고생은 했는데 돈을 적게 받는 것이다.

경한 슈레더 사업소는 올해부터 현대제철의 자율품질관리에 따른 자율검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입력한 품질 수준을 현대제철이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물론 불시에 샘플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입력 수치보다 나쁘게 평가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경한 슈레더 사업소가 현대제철로부터 납품업체 품질인증인 '5스타'를 획득한 것도 이러한 신뢰가 밑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최고의 맥(脈)은 인맥(人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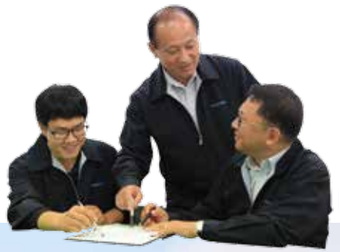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경한 슈레더 사업소가 한해 처리하는 폐차는 25% 정도. 물량을 늘려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지만, 공급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어 폐차 가격은 수요와 공급량에 따라 좌우된다. 더 많이 사고자 하면 더 비싼 값을 줘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포항에 위치한 사업소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폐차를 구매한다. 폐차는 수도권에서 45%가 발생해 최대 구매처가 될 수 있지만 이동 거리가 멀어 구매원가가 올라가고 경쟁도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어 영남권에서의 구매파워를 높이는 것으로 전략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영남권 중 대구가 가장 많은 폐차가 나오는 곳인데 대구시에서 초기 2개에 불과했던 거래처가 늘어나 지금은 13개 모든 폐차장에서 구매하고 있다. 대구에서 나오는 폐차의 90%를 경한 슈레더 사업소에서 매입하고 있다.

01 S/D생산팀 최익준 사원이 OP에서 S/D 생산작업을 하고 있다.

02 구매팀 장규현 부장(가운데)이 김정수 과장(좌)과 옥창환 과장(우)에게 권역별 모재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3 (앞쪽부터 뒤쪽으로) 박명서 공장장,이상영 부장, 유승일 사원, 국수민 사원, 이은혜 사원, 김영서 사원, 정광용 차장, 옥창환 과장, 장진우과장, 장규현 부장, 서길수 차장, 김우진 대리, 최익준 사원



04 S/D생산팀 이은혜 사원이 계중실에서 비철선별자에게 계중전표를 전달하고 있다.

"폐차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와 거래할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거래가격은 거기서 거기고, 경한이 오히려 깐깐하게 품질을 관리했기 때문에 되려 배척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폐차구매팀 옥창환 과장)

폐차장 사장들을 설득하고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정성! 폐차장 사업주들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자수성가한 경우가 많아 접대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고 한다. 대신 이른바 '기름밥'을 먹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이라 성실하고 꾸준한, 인간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처음 방문했던 당시 눈도 안 마주치던 한 폐차장 사장은 사무실 청소와 짐 옮기기, 공장밥 같이 먹기 등 몸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자 드디어 3년 만에 폐차 거래를 터줬다는 일화도 있다.

"전략 지역인 영남권 143개 폐차장 중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한다는 것이 업무 원칙입니다. 마산과 대구에 거점을 두고 이동 동선을 치밀하게 세워도 한 사람당 한 달에 5천㎞를 이동하죠" 장규현 구매팀장을 비롯해 3명의 팀원이 한 해에 달리는 거리는 24만㎞이다. 이들은 해마다 지구를 6바퀴 돌고 있는 셈이다. 내근직으로 있는 김영서 씨는 구매팀 안살림을 맡아 마음으로 팀원들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생겨난 것이 패밀리 폐차장이라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경한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경한 슈레더 사업소는 원재료인 폐차의 수급은 물론 파쇄잔재물 처리에도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를 맺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항목 중 하나가 물류비다. 2013년까지는 영남권에 파쇄잔재물 처리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소각업체에 의뢰했던 것을 자원순환법이 적용되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경한이 지역 내 소각업체를 설득하고 전문업체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와 이점에 대해 설명한 결과 6개의 전문업체를 등록시키는 데 성공, 이들을 통해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전문업체는 전국적으로 14개가 있는데, 이 중 6개 업체가 영남권에 만들어졌고, 이들이 처리하는 물량도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니 경한 슈레더사업소가 폐기물 처리 선진화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명서 공장장 미니 인터뷰

"패밀리 폐차장" 제도의 도입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차는 폐차장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떼어내고 압축하게 됩니다. 폐차장에서 일하는 방식에 따라 저희에게는 부담되는 파쇄잔재물의 양이 달라지죠. 이는 고철과 비철의 품질과도 직결되어 이익과 연관 깊습니다. 때로는 직원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폐차 처리방식을 우리 기준에 맞춘 업체를 선정한 것이 패밀리 폐차장입니다. 물론 단가 변동 폭을 최소화하여 폐차장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남권에 12개 폐차장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고, 연말까지 15개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폐차는 100% 직매입하고 있는데, 구매팀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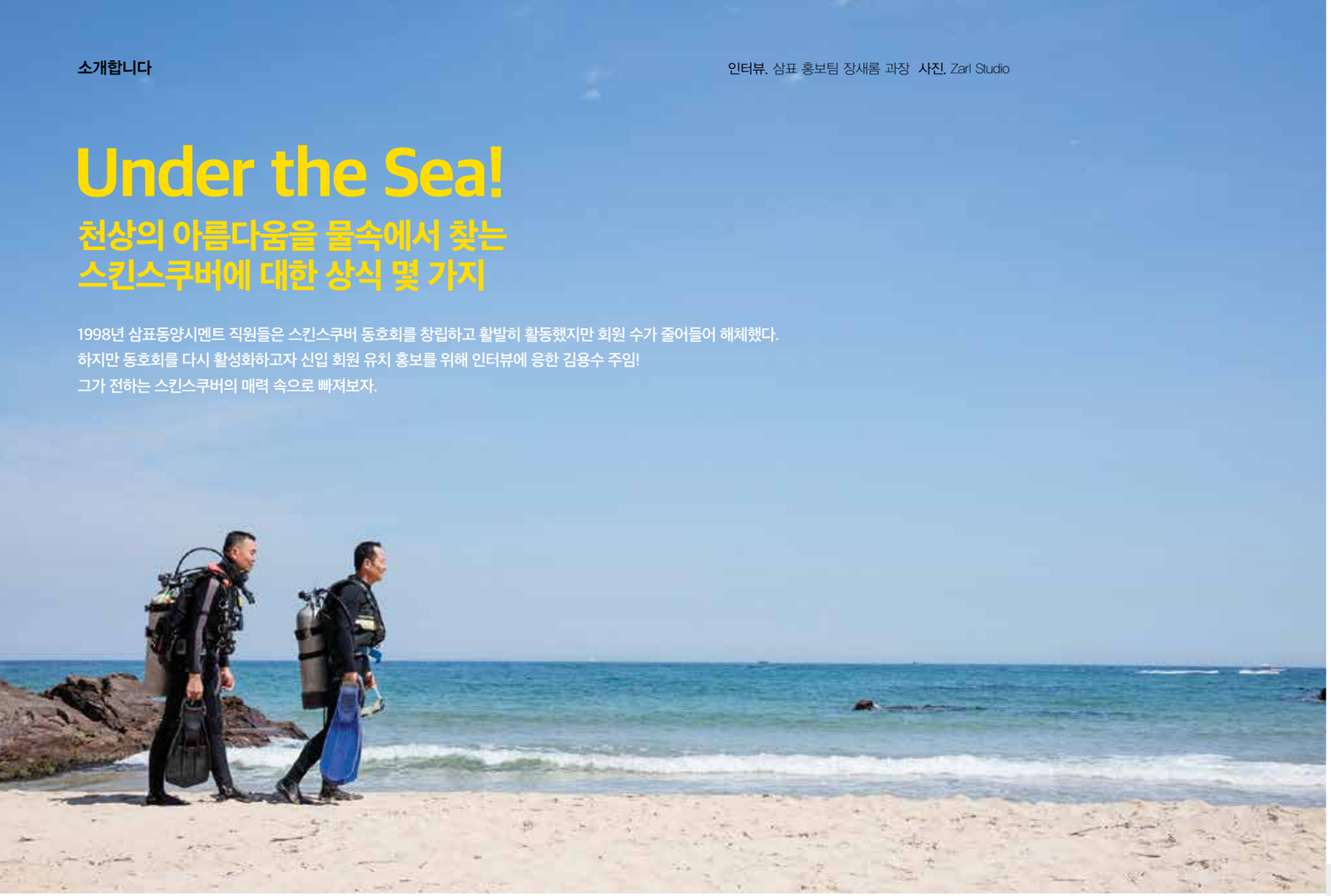
구매팀 중에는 일주일에 두 번 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많아서인데, 공장장으로서 참 미안합니다. 특히 직원 가족들에게도요. 직매입이 아니면 딜러를 통해서 구매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폐차의 품질이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이 되는 고철의 품질이 낮아 감량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파쇄잔재물이 많아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패밀리 폐차장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발로 열심히 뛰는 것만이 사업본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터뷰. 삼표 홍보팀 장새롬 과장 **사진.** Zarl Studio

Under the Sea!

천상의 아름다움을 물속에서 찾는 스킨스쿠버에 대한 상식 몇 가지

1998년 삼표동양시멘트 직원들은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창립하고 활발히 활동했지만 회원 수가 줄어들어 해체했다.
하지만 동호회를 다시 활성화하고자 신입 회원 유치 홍보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김용수 주임!
그가 전하는 스킨스쿠버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김용수 주임이 전하는 스킨스쿠버 상식 123!

스킨스쿠버를 하려면 수영을 잘해야 한다?

✕ 아니다. 스킨스쿠버는 물에 잘 가라앉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부력조절기가 있어 물속에 평생 머물 일은 없다.

스킨스쿠버에는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 그렇다. 압력은 기체의 부피와 반비례하고, 액체(혈액)에 녹는 기체의 양과 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과 헨리의 법칙이 적용된다. 다이버가 수심 10m까지 잠수한다면 수압이 2기압으로 늘어나 공기탱크 속 산소와 질소는 대기압보다 2배 높은 압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이버는 지상에 있을 때보다 2배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게 된다. 이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할 때는 수심에 따라 공기탱크 속에 있는 공기의 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다이버가 급하게 수면으로 올라오면 몸속에 녹아든 질소가 체내에 남아 잠수병을 유발할 수 있다.

충치가 있으면 스킨스쿠버를 할 수 없다?

△ 아주 드물게 치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 변화가 이유다.

"사전에 챙겨야 할 것도 많고, 항상 안전에 신경써야 할 레저스포츠임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푸른 바닷속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물고기 그리고 수면 위로 쏟아져 내리는 환상적인 빛의 기둥은 직접 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감동입니다. 제가 스킨스쿠버에 빠져 사는 이유죠" 삼표동양시멘트 품질팀 김용수 주임의 말이다.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 어종이 바뀌고 다이내믹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죠. 무중력 상태에 몸을 맡기다 보면 물속에서 새가 된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김 주임은 1998년 삼표동양시멘트 직원들로 구성된 스킨스쿠버 동호회 창립 멤버다. 2005년에는 회원 수가 25명까지 불어났으나 점점 줄어들어 결국 해체의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동호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특히 삼척공장이 바다와 근접해 있어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바닷속에 날려버리기에 더 없이 딱이라며 김주임은 '엄지 척'을 연발했다. 왜 찬바람 부는 계절에 스킨스쿠버냐고 의아해할 사람도 있겠다. 바닷물은 해당 계절보다 수온 변화가 늦어서 1년 중 수온이 가을이 제일 높다고 한다. 특히 제주도는 이맘때가 스킨스쿠버 하기에 최적기인데, 바닷속도 깨끗해 시야가 탁 트이고, 물고기도 더 많아져서라고 한다. 제주도 서귀포를 중심으로 간단한 강습과 장비 렌탈도 가능한 곳이 많으니 이번 가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봄은 어떨까.

삼표동양시멘트 품질팀 김용수 주임

저는 보라카이에서 스킨스쿠버를 처음 해봤는데, 물속에 뛰어들 때 엄청난 두려움이 느껴지더군요. 현지 가이드 팔에 매미처럼 매달려서 내려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기본적으로 위험하지는 않나요?

스킨스쿠버의 모든 장비는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중탐사를 위한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면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성급하게 자신감을 앞세우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교육받은 대로, 매뉴얼대로만 하면 엄마 뱃속처럼 푸근한 바닷속 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지진 전조 현상으로 심해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수를 하다 보면 아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 키 정도 크기의 '심해갈치'라고 부르는 투라치를 봤는데, 저 깊은 바닷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종도 있다고 생각하니 자연이 만들어낸 생명의 다양성에 감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참! 스킨스쿠버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대왕문어를 잡아오라"는 말을 제법 하는데 모든 어로 행위는 불법입니다. 바다는 눈으로 즐기고, 고기는 횟집에서 즐겨야 합니다.

지금은 동호회가 없어졌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동호회의 활동을 알리는 코너인데, 저는 신입회원 유치 목적으로 취재에 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08년부터 활동이 없었거든요. 그때의 추억으로 같이하자고 부추기는 직원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제대로 다시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단지 바닷속을 즐기는 것만은 아니고, 불가사리 퇴치나 물속 환경 정화 활동 등 보람찬 일들도 해가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 문의: 김용수 주임 010-6371-5734

글·사진. 사보 편집실

삼표시멘트의 고객 서비스와 좋은 인연에 감사합니다

지난여름, 성남에 사는 최병국 씨가 삼표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칭찬의 글을 접수했다. 최병국 씨를 감동시킨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화성몰탈공장의 이창환 품질관리팀장. 최병국 씨가 얼굴도 모르는 이창환 팀장을 칭찬하는 글을 쓴 이유는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이창환 팀장의 투철한 서비스 정신 때문이다.
삼표의 드라이몰탈을 사용하다가 백화 현상을 겪은 최병국 씨를 위해 이창환 팀장은 드라이몰탈 4포대와 함께 직접 최병국 씨의 집을 찾았다. 시간이 맞지 않아 이창환 팀장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집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손봐준 이창환 팀장의 세심함에 크게 감동했다며 최병국 씨는 본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최병국 씨와 이창환 과장의 사연을 알게 된 (주)삼표 기초소재 이성연 대표는 이창환 팀장에게 별도의 포상을 했고, 사보 편집실에서는 피자와 함께 칭찬의 글을 이창환 팀장에게 전달했다.

01

01 이창환 과장이 피자를 한 아름 안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02 이 과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동료들과 피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사원), 이태훈(과장), 이창환(과장), 유민경(부장, 화성몰탈공장 공장장), 유경희(사원), 김정옥(차장)

안녕하십니까? 최병국입니다.

삼표 본사를 통해 통화한 많은 사원 분 중에서도 시멘트 초보자인 저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준 친절한 분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성남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건재상에서 삼표 드라이몰탈 4포대와 자갈을 조금 구매했습니다. 단독주택 거실 앞 작은 구덩이를 메워 추후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가게주인은 물만 적당히 부으면 된다고 했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해 보니 1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몰탈 8포대를 추가로 구매할 정도로 공사 규모가 커지자 그제야 '아, 공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일주일쯤 뒤부터 구덩이 위로 하얀 가루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몰라 건재상에 전화를 해보니 시공 부위를 전부 다 들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바닷모래를 쓰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알 리가 있나요. 해결책이 있는지 물어보아도 묵묵부답인 건재상 때문에 애를 태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삼표 본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분이 바로 화성몰탈공장의 이창환 품질관리팀장입니다. 이창환 팀장은 '일반 몰탈은 바닥이 아닌 벽면에 사용하는 것이고, 바닥용 몰탈은 따로 있으며 몰탈에는 화학성분이 있어서 너무 많은 물을 섞으면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백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용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백화 현상'이라는 말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이 시공 방법의 문제라는 것 역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창환 팀장은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현장을 찾아와 확인해 보고 해결책을 고민하자고 하면서 몰탈 몇 포대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창환 팀장은 친절하게도 몰탈 4포대를, 그것도 토요일에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토요일에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창환 팀장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혹여 몰탈이 비를 맞을까 비닐로 잘 덮어놓고 돌아간 모습을 보고 그 세심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후에 이창환 팀장이 알려준 방법대로 시공한 결과 지금은 현관 앞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회사를 위해 정성껏 일하는 그분께 너무 고마워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향후 이 자리에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공 시 삼표시멘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물론 명세서에도 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창환 팀장 덕분에 시멘트에 대한 혜안이 생겨 기쁘고, 좋은 인연을 만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창환 팀장의 무궁한 발전과
삼표 드라이몰탈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며.

2016.08.02 최병국 올림

02

글·사진. (주)유니콘 대전영업과 조영준 차장, 민경환 대리

대전사람 사로 잡은 그 맛

대전광역시는 시민 만족도 1위(94.3%)에 선정된 살기 좋은 도시다(2014 조선일보,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이 지역 사람들에게 대전에 대해 물어보면 "살기에는 좋지만 놀 곳과 먹을 곳이 없다"라는 공통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맛집은 존재하는 법. 대전을 방문하는 사우들을 위하여 (주)유니콘 대전공장 사우들이 맛집을 추천한다.**

성심당 60년 전통의 대전 대표 빵집

전국 5대 빵집 중 하나로 유명한 성심당은 SBS 〈런닝맨〉을 비롯해 각종 SNS를 통해 최근 유명세를 더해가고 있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성심당에는 다양한 빵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튀김 소보루와 부추빵이 유명하다. 튀김 소보루는 안에 팥소를 넣고 튀긴 빵으로, 한입 베어 물면 팥의 달콤함과 튀김의 바삭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부추빵에는 부추와 고기가 들어있는 데 연령대나 입맛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진다. 거리상의 제약으로 방문이 힘들다면 성심당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영업시간 08:00~23:00 (연중무휴)
주요메뉴 튀김 소보루 (1,500원), 부추빵 (1,800원) 등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45번지 (대전공장 6.3㎞)
주차 가능
문의 1588-8069

솔밭묵집
4색의 조화, 묵사발 그리고 보리밥

예로부터 대전 관평동(구즉) 일대에는 도토리나무가 많아서 묵 마을이 생겨났고 묵사발이 이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솔밭묵집은 대전공장을 찾는 손님을 종종 모시는 집이다. 이곳은 묵 마을 내 음식점 중에서도 대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검증된 맛집이다. 담백한 백숙 또한 일품이니, 평소 채식보다 육식을 선호하는 사우라면 백숙을 맛봐도 좋다.

영업시간 09:30~21:30 (연중무휴)
주요메뉴 묵사발 (4,000원), 보리밥 (6,000원), 백숙 (34,000원)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542-5 (대전공장 8.3㎞)
주차 가능
문의 042-935-5686

오문창 순대국밥
대전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순댓집

오문창 순대국밥은 항상 자리가 부족하다. 믿기 힘들겠지만 심지어 새벽에도 자리가 부족할 때가 많다. 이곳을 처음 방문한 손님은 저렴한 가격에 한 번 놀라고, 푸짐한 양에 두 번 놀라고, 담백한 맛에 세 번 놀란다. 국밥 한 술에 깍두기를 올려 정신없이 먹다 보면 어느새 한 그릇이 뚝딱 사라진다.

영업시간 00:00~24:00 (명절 당일 휴무)
주요메뉴 순대국밥 (5,000원), 모둠순대(小) (5,000원) 족발(小) (5,000원)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03-2 (대전공장 2.1㎞)
주차 가능
문의 042-621-4325

양사싯골 청국장과 제육볶음의 조화

양사싯골은 대전 외곽에 있는데도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데 이곳의 메뉴가 밥 도둑이라고 할 만큼 맛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청국장 정식 1인분을 시키면 청국장과 제육볶음이 나온다.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청국장과 큼직큼직한 제육볶음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냄새를 최대한 줄인 청국장을 잡곡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어느새 밥 한 공기가 뚝딱 없어진다. 제육볶음을 쌈에 싸서 먹으면 밥 두 공기도 거뜬하다.

영업시간 11:00~21:00 (명절 연휴 휴무)
주요메뉴 청국장 정식 (9,000원), 닭볶음탕 (25,000원)
주소 대전 유성구 방현동 8 (대전공장 10㎞)
주차 가능
문의 042-861-7912

스마일 칼국수 백종원도 미소 짓게 만든 칼국수

'칼국수' 하면 남녀노소 좋아하는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을 떠올린다. 대전의 스마일 칼국수는 한 입 맛보는 순간 말 그대로 미소가 지어진다. 맵지도 짜지도 않은 국물에 고소한 들깻가루와 아삭한 쑥갓, 쫄깃한 면발의 조화가 환상적이다. 이 집 맛의 비결은 '디포리'라고 하는 밴댕이로 우려낸 육수와 수타면 특유의 쫄깃함이다. 직접 만든 육수와 면에 정성을 더해 맛도 훌륭하다. 달콤하면서 짭짤한 유부가 들어있는 김밥도 특징이다.

영업시간 11:00~20:00 (일요일 휴무)
주요메뉴 손칼국수 (6,000원), 김밥 (두 줄 5,000원), 수육(中) (20,000원)
주소 대전 중구 대흥동 440-1 (대전공장 7㎞)
주차 인근 유료주차장
문의 042-221-1845

소토낙
소백산 토종 흑돼지와 낙지 이야기

소토낙의 주메뉴는 '더위에 지쳐 쓰러진 황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낙지와 소백산 토종 흑돼지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음식은 낙지 볶음인데, 매콤한 냄새와 빨간 비주얼은 음식을 맛보기 전부터 입안에 침이 고이도록 만든다. 흑돼지 오겹살은 불판에 종이를 올려서 구워주는데, 종이가 기름은 흡수하고 육즙은 고스란히 남겨서 고기 맛을 더해준다. 전날 과음했다면 연포탕을 추천한다. 명태와 무로 육수를 낸 시원한 국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낙지가 들어간 연포탕은 숙취 해소에 제격이다. 소토낙 주인에게 삼표, 유니콘 직원이라고 말하면 음료수를 무한 제공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11:00~22:00 (명절 연휴 휴무)
주요메뉴 낙지볶음 (8,000원), 오겹살 (11,000원), 연포탕(中) (38,000원)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86-10 (대전공장 4.7㎞)
주차 가능
문의 042-862-3479

한마당 식당 시원한 대구지리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대전 대덕구 신탄진의 한마당 식당을 추천한다. 30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자랑하는 한마당 식당의 주메뉴는 대구탕과 대구지리다. 대구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몸보신에 매우 좋다고 한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대구지리로, 국물 맛이 일품이다. 뽀얀 국물 안에 아삭한 콩나물과 두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대구를 보면 쓰린 속도 풀어지는 느낌이다. 대구 살만 건져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사장의 인심이 넉넉하다.

영업시간 10:00~21:00 (명절 연휴 휴무)
주요메뉴 대구지리 (9,000원), 대구매운탕(中) (35,000원)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05-19 (대전공장 10㎞)
주차 가능
문의 042-932-8091

한영식당 매콤한 닭볶음탕

한영식당은 매콤한 닭볶음탕으로 유명하다. SBS 〈백종원 3대 천왕〉에 소개된 이후 더 손님이 많아져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의 대표 메뉴인 닭볶음탕은 솥에 익혀서 나오지만 10분간 솥뚜껑을 못 열도록 한다. 그 이유는 뜸을 들여서 고기를 더욱 쫄깃하게 익히고 국물을 진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물을 더욱 조리면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고기와 건더기를 먹고 나중에 국물에 밥을 볶아먹을 수 있다. 송송 썬 파를 얹어 마무리한 볶음밥은 고기로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100% 만족시킨다.

영업시간 11:00~21:00 (명절 휴무)
주요메뉴 닭볶음탕(小) (23,000원)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49-25 (대전공장 7㎞)
주차 유료주차 가능
문의 042-533-2644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일상 속

찰나의 순간

칠순 잔치에서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어머니, 시골 여행에서 등목을 처음 경험해보고 깜짝 놀란 우리 아들, 막 출산한 딸을 안고 미소 짓고 있는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
행복이란 기쁨의 강도보다 빈도에 달려있습니다. <삼표 愛>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의 가족이 행복해하던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가을호 사보 포토 이벤트는 '그룹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들의 투표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대상

[대상] 삼표기초소재 분제기획팀 **안인준 차장**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혼자 세수했을 때의 기념사진입니다.
저는 옆에서 수건을 대령했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첫 성공'을 기념하게 되겠지요?

금상

[금상] 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 안성공장 **임대진 과장**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시기 석 달 전 사진입니다.
예전에는 몸집이 크셔서 업어드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는데,
위암으로 가벼워진 아버지를 생전 처음 업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그 후로는 업어드릴 기회가 없네요.

동상

[동상] 삼표산업 성수공장 영업부
서울영업소 **박인식 과장**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시간을 즐기는 아빠 곰과
아기 곰. 사진은 엄마 곰이 찍어주었답니다

[동상] 삼표산업 골재본부 골재생산지원팀
김동혁 대리
올해 어버이날, 네 살배기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만든 카네이션이라면서 얼굴에 꽃을 달고 저를
뿌듯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아들이 만든 카네이션을 이용해 부모님께 사진을
찍어 보내드렸지요. 부모님께서 깔깔대며 너무
좋아하셨지요. 아들 덕분에 효자 노릇 했습니다.

[동상] 네비엔 환경자원부 소각영업팀
한정협 사원
3월에 태어난 딸과
어설픈 초보 아빠의 모습입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내리려는 순간,
아빠의 멱살을 잡고 놔주지 않는 딸을 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면을
아내가 포착했습니다.
매일 육아에 지쳐있는 혜지 엄마!
혜지 웃는 모습 보면서 힘내자~!

[동상] 삼표동양시멘트 포장시멘트팀
강정민 과장
몸이 안 좋은 와이프가 어렵게 얻은
둘째 딸입니다.
아빠가 안고 가기 힘들다고
귀염둥이 딸이 뽀뽀를 해주네요.
역시 딸이 최고네요.
참고로 첫째는 아들입니다.

[동상] 경한 스크랩사업본부
슈레다생산팀 **장진우 과장**
우리 첫째가 저랑 같이 자는 모습입니다.
아빠를 닮았나요?^^

은상

[은상] 삼표 기초소재 영업1팀 **김보영 과장**
우리 쌍둥이가 이리 수박을 좋아할 줄이야!
너희들과 함께한 첫 휴가, 너무 즐겁고 고마워!

[은상] 신대원 골재사업부 남부영업소
골재영업팀 **이현상 사원**
봄기운 받으러 전라북도 고창에서 가족 힐링 여행 중,
따스한 봄기운 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찍어보았습니다.

〈포토 이벤트 댓글 투표 당첨자〉
삼표기초소재 천안슬래그공장 관리팀 마강덕 부장
삼표 법무팀 이선희 과장
신대원 골재사업부 중기팀 이민호 사원
신대원 안성사업소 관리팀 김명선 대리
삼표산업 골재본부 양주사업소 관리팀 이영란 대리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글. 박덕은 〈비타민과 미네랄〉 저자

친하게 지내자, 비타민

꾸준한 운동과 관리,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식단을 챙기는 일 외에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로 비타민 섭취를 꼽을 수 있다. 정상적인 발육과 생리 작용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가 비타민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소량이 필요하지만, 비타민D와 비타민K를 제외하고는 체내에서는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따로 보충해야 한다.

매일매일 지치고 피곤한 당신, 혹시 비타민 부족?

사례.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한 직장인 A씨는 종종 있는 회식이나 야근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식단관리는 물론 틈틈히 운동도 잊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는 병치레가 잦고 몸은 천근만근, 피로만 쌓여간다. 체중관리에 신경쓰는 편이라 특히 과식도 주의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 먹는다고 자부했는데 몸이 맘처럼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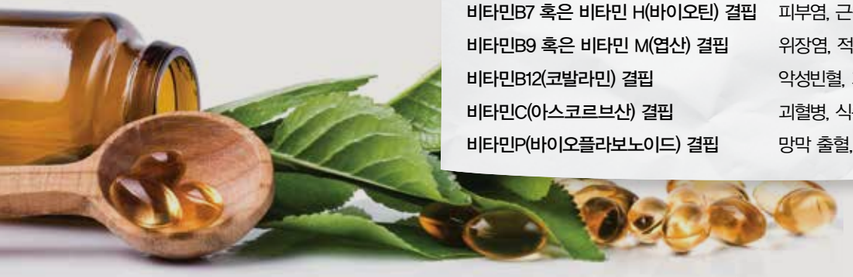
비타민이 모자라면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질병을 초래한다. 그런데 비타민은 인체의 세포 내에서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생산이 불가능하다.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뉜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에 용해되고,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다. 필수 영양소이므로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특유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몸을 망가뜨린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지용성 비타민(A/D/E/F/K/U) 결핍 증상

비타민A(레티놀) 결핍	야맹증, 안구 건조, 성기능 장애
비타민D(칼시페롤) 결핍	골연화증, 구루병, 골다공증
비타민E(토코페롤) 결핍	불임증, 노화성, 신경 파괴
비타민K(메나디온) 결핍	혈액 응고 지연, 뇌출혈
비타민U(항궤양성비타민) 결핍	소화 궤양, 지방간, 상처가 잘 낫지 않음

수용성 비타민(비타민 B군/C/P) 결핍 증상

비타민B1(티아민) 결핍	각기병, 식욕 부진, 피로, 심부전증
비타민B2(리보플라빈) 결핍	안질, 구내염, 눈부심
비타민B3(니코틴산) 결핍	설사, 치매, 흥분
비타민B5(판토텐산) 결핍	성장 정지, 두통, 불면증
비타민B6(피리독신) 결핍	피부병, 빈혈, 발작, 구토
비타민B7 혹은 비타민 H(바이오틴) 결핍	피부염, 근육통, 피부 건조증
비타민B9 혹은 비타민 M(엽산) 결핍	위장염, 적혈구 감소
비타민B12(코발라민) 결핍	악성빈혈, 기억력 감퇴
비타민C(아스코르브산) 결핍	괴혈병, 식욕 감퇴, 잇몸 출혈
비타민P(바이오플라보노이드) 결핍	망막 출혈, 류마티즘



비타민 과잉, 오히려 독이 된다?

비타민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지용성 비타민을 과하게 먹으면 지방 조직에 축적되고 수용성 비타민은 약제로 다량 투여할 경우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매일 필요량 정도만 섭취하는 게 좋다. 비타민 과잉 섭취 증상은 다음과 같다.

비타민 과잉 섭취 증상

비타민A 과잉	두통, 피로, 피부 건조, 관절통
비타민B3 과잉	간 손상
비타민B6 과잉	손발의 무감각, 손발 쑤심, 비틀거림, 졸림
비타민B13 과잉	간 장애
비타민D 과잉	신장 결석, 신부전, 성장 지연, 체중 감소, 신장 손상
비타민E 과잉	출혈, 설사, 근육 허약, 피로, 두통

비타민, 똑똑하게 먹자

그렇다면 비타민은 언제, 누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

WHO. 청소년은 비타민A, 다이어트로 영양이 부족한 젊은 여성은 비타민D, A, C, E,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비타민B, C, 노인은 비타민D를 별도로 섭취해 영양소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은 비타민B와 C를 함께 복용한다.

WHEN. 비타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네랄을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한다. 비타민D는 식사 전, 비타민B9, K는 식후에 먹는다. 종합 비타민과 같이 먹는다면 마그네슘과 칼슘이 철분 섭취를 방해하므로 철분은 식사 전, 종합 비타민은 식사 후에 섭취한다.

HOW. 철분이나 비타민 E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비타민C를 같이 먹고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인과 비타민D를 함께 섭취하면 좋다. 오메가3는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일부 비타민을 제외하고 비타민은 함께 복용하거나 다른 영양제와 동시에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NG. 임산부가 비타민A를 과다 섭취하면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C는 구리의 흡수를 막으므로 같이 먹지 않는다. 항산화제와 종합비타민을 함께 복용하면 비타민 A를 과용할 수 있고 피부 건조, 졸도,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함께 먹는 것은 피한다.

글. 김슬옹 〈한글 우수성과 한글 세계화〉 저자

한글 반포 570돌, 꼭 기억해야 할 한글 이야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한글, 그러나 늘 사용했기에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글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글 반포 570돌을 맞이해 한글의 위대함을 알아보자.

세종, 한글을 창제하다

올해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세상에 한글을 알린 지 570돌이 된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에는 한글 자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자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역사가 '존 맨'은 한글이 '모든 알파벳의 꿈'이라고 표현했다. 한글이 문자의 이상을 가장 잘 담은 문자라는 것이다. 〈총, 균, 쇠〉의 저자로 유명한 '제래드 다이아몬드' 역시 한글은 '문자의 사치'라고 말할 정도로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BBC는 올해 맨부커 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소식을 전하며 한강이 훌륭한 문학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한글 덕분이고 이를 만든 세종대왕 역시 상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우리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글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을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세종실록〉과 1446년에 펴낸 〈훈민정음 해례본〉에 뚜렷하게 나와 있다. 일부 계층만이 글을 읽을 수 있던 시대에 하층민과 여성을 비롯해 누구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창제(1443) 17년 전부터 백성에게 지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고민했는데 1434년에는 답답한 나머지 한문 맞은편에 만화를 그린 〈삼강행실도〉라는 윤리 책을 펴내기도 한다. 그러나 만화로도 뜻을 전달하기 어려워지자 한글을 만든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세종은 백성이 한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하기를 바란다고 천명했다.

쉽고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의 가장 뛰어난 점은 소리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찰랑찰랑, 출렁출렁, 짤랑짤랑, 꼬꼬댁, 꼬끼오' 등의 의성어를 마치 들리는 듯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문자의 혁명이요, 기적이었다. 이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있기에 가능했다.

자음 |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모양으로 구성하되 점·원·직선만으로 디자인했다. 자음은 혀가 발음기관에 닿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닿는 곳의 모양이나 상태를 본떴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ㅁ, ㅅ, ㅇ'은 각각 입, 치아, 목구멍 모양을 따랐다. 다섯 자를 바탕으로 혀를 같은 자리에 놓되 소리가 다른 글자들은 획을 더하니 자음의 전체 짜임새가 탄탄했다.

모음 | 모음은 입 모양, 혀 모양, 목구멍 상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발음기관을 본뜰 수 없었으므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닮은 'ㆍ, ㅡ, ㅣ'를 만든 다음 합성하는 방식으로 글자를 확장했다. 천지인 기본 세 자를 합쳐 단모음 'ㅗ, ㅏ, ㅜ, ㅓ', 이중모음 'ㅛ, ㅑ, ㅠ, ㅕ'를 창제했는데 이러한 여덟 자에는 우리말의 특성이 그대로 담겨있다. 우리말에는 음양의 기운이 있어 그것을 반영하여 'ㅗ, ㅛ, ㅏ, ㅑ'와 같은 양성모음은 점을 위와 바깥쪽으로 합성했고 'ㅜ, ㅠ, ㅓ, ㅕ' 등의 음성모음은 아래와 안쪽으로 점을 찍어 만들었다. 자음, 모음 모두 간결하면서도 뚜렷하게 구별되어 읽고 쓰기 쉬운 글자가 되었다.

한글의 미래, 어디로 향하는가

한국어는 현재 지구 상의 7,000여 개 언어 가운데 모국어 사용자 수로 보면 세계 13위를 차지한다. 전 세계 약 4천만 명이 인터넷에서 한글로 정보를 나누며, 언어별 인터넷 사용자 수로는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언어로 성장하였다. 또한, 한글학교와 세종학당,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재외 한국문화원 등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은 현재 전 세계 약 4,0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울한 소식도 있다. 대학교에서 영어로 쓴 논문에 파격적인 특혜를 주다 보니 한글로 쓴 논문이 사라지고 있으며 영어 숭배주의가 도를 지나쳐 일각에서는 미래에는 한글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을 국가 브랜드로 삼아야 한다. 말을 적는 문자로서 한글을 널리 보급하는 데 힘써 한글의 보편적 가치를 나눠야 한다. 앞으로 한글의 의의를 드높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글. 더 드라이브 이다일 수석기자

전기차
언제 구입할까?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아이오닉의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9월 문을 연 국내 유명 쇼핑몰에는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가 매장을 연다는 소식이 들린다. 어릴 적 꿈꾸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플러그를 꽂아 충전하고 도로를 달리는 미래의 차, 전기차가 속속 현실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도 있다.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충전할 것이며 운행 거리가 짧다는데 달리다 멈추는 상황은 없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전기차 시대 돌입하나

전기자동차는 구조가 매우 간단하다. 쉽게 요약하면 모터와 배터리가 전부다. 그 위에 차체를 얹고 에어컨, 히터, 오디오 등 편의장비를 추가했다. 휘발유나 경유를 폭발시키는 엔진이 없으니 각종 오일이 크게 줄었고 냉각을 위한 별도의 장비도 없어졌다. 공기를 혼합하지 않으니 필터를 포함한 크고 부담스러운 부품도 사라졌다. 구조가 단순한 것이 장점이라면 단점도 있다. 배터리가 무겁고 비싸다. 전기차 값의 30~40%를 배터리가 차지한다. 무거운 부품이니 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깔거나 뒷좌석 언저리에 넣는다. 차체가 무거워진 만큼 주행거리가 짧아진다. 배터리를 늘리면 작동시간이 증가하지만 무게 때문에 주행거리가 딱히 큰 폭으로 늘지 않는다. 전기차 생산의 가장 큰 걸레마다. 현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는 어림잡아 8종 정도 된다. 물론 수입차를 포함해 몇 가지가 더 있지만 환경부의 전기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8종뿐이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이 올해 출시됐고 그 전에는 기아자동차의 쏘울이 인기를 끌었다. 르노삼성의 준중형 세단 SM3 전기차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수입차 가운데는 BMW의 i3가 인기다. 독특한 외형이 특징이다. 닛산의 LEAF는 해외에서 몇 년간 인기를 끌었지만 국내에는 작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외에는 경차 레이, 스파크의 전기차 모델이 있고 경상용차 라보에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한 라보 PEACE가 판매되고 있다.

비싼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충전 시설 확보가 관건

전기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비싸다. 경형, 중형 관계없이 배터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전기차의 값은 차종에 따라 3,000만 원~5,000만 원에 이른다. 최근 신차를 출시하며 해외에서 주목받는 테슬라의 모델 S는 1억 원이 넘는다. 일반 차에 비해 높은 가격은 고급 차 브랜드라는 프리미엄도 붙었지만 배터리 때문이다. 높은 가격의 대안으로 각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늘리고 있다. 올해 7월에도 환경부 보조금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별로 책정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전남 순천시를 예로 들면 총 2,200만 원을 차 값으로 지원받는다. 전기차 값은 보조금을 고려하면 실제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전기차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고 도시철도채권은 최대 200만 원까지 할인을 받는데 국토부와 산업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 감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림잡아 살펴보면 약 4,420만 원의 기아자동차 쏘울 EV를 구입할 경우 최대 2,800만 원의 감면 혹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차 값은 1,620만 원이 된다. 동급 가솔린 차량보다 값이 낮아지면서 실제 유지하며 발생하는 통행료, 주차요금 등의 부가 할인까지 고려하면 경제적인 선택이다.

다만, 전기차의 보급 확대는 충전 시설이 발목을 잡고 있다.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최대 190㎞ 이내이며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하면 30% 정도 줄어든다. 대도시의 일반인 하루 주행거리가 50~60㎞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지만 매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언제 어느 곳에서 차가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다.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는 지자체가 나서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주유소, 대형마트, 공영주차장에 충전 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4,000개 아파트 단지에도 완속 충전기를 단지 당 최대 7개씩 설치할 계획이고 카페나 쇼핑몰에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정부는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급속 충전기는 약 30분이면 80%가량, 완속 충전기는 4시간 정도면 100% 충전된다.

전기차 본격 판매 예정, 정부 지원은 여전히 필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전기차를 출시해 6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6월과 7월 두 달간 소비자에게 인도된 아이오닉 전기차만 705대에 이른다. 그간 연례행사로 열리던 제주도 전기차 보급 추첨이 1,000대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단숨에 판매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수입차의 전기차 시장 공략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해 BMW가 i3를 내놓으며 고급 전기차 시장을 개척했고 닛산이 LEAF를 제주도 전기차 공모에 맞춰 출시했다. 올해는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하며 한번 충전으로 300㎞ 이상 달릴 수 있는 대당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전기차도 도로에서 볼 수 있다. 테슬라는 최근 한국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모델 S를 출시하고 내년에는 모델 X, 이후 모델 3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독자적인 충전시설 확충이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신세계그룹과 제휴를 통해 판매와 충전 시설을 늘린다. 경기도 하남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에 첫 전시장을 설치하고 향후 이마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의 유통망을 활용해 독자적인 충전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직 전기차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정부 주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실용화 단계를 넘어섰다. 미국과 유럽에는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일본, 중국도 지역마다 충전 설비를 확충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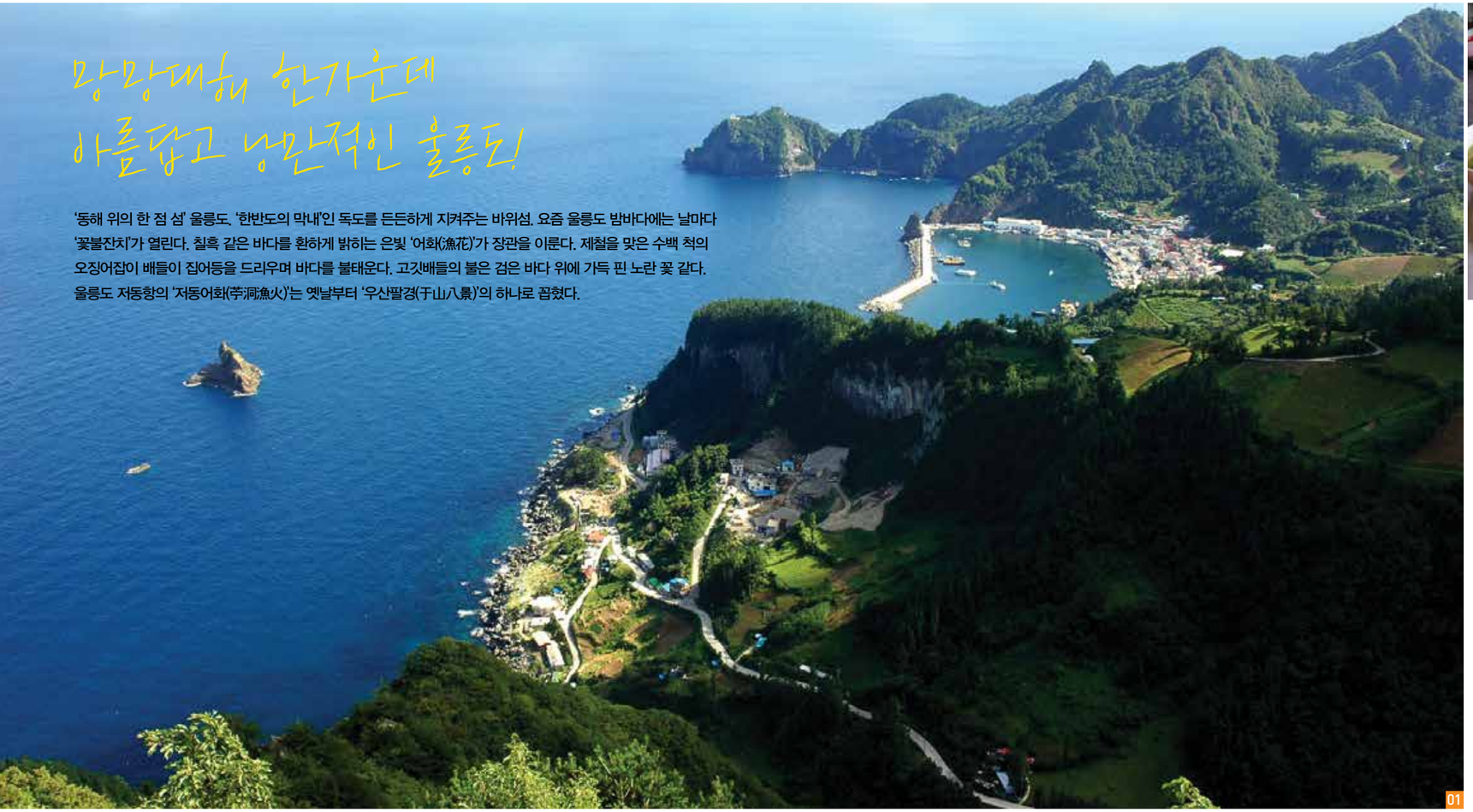
전기는 생산 방식이 원자력, 화력, 풍력 등 발전시설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벽한 친환경 동력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열효율 50%를 넘지 못하는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보다 에너지가 동력으로 전달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으로 꼽힌다. 또,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 패권에서도 일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정책적인 고려도 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며 완숙해진 전기차 기술이 더해지면서 자동차 엔진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BMW의 전기차 i3는 차체 중앙 하단에 배터리를 넣었다. 가장 무거운 부품을 중앙에 배치해 조향성을 개선했다. 또한, 간단한 벽면 충전기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글. 사보편집실 사진. 양우성 사진작가, 울릉 군청 제공

망망대해 한가운데 아름답고 낭만적인 울릉도!

'동해 위의 한 점 섬' 울릉도. '한반도의 막내'인 독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바위섬. 요즘 울릉도 밤바다에는 날마다 '꽃불잔치'가 열린다. 칠흑 같은 바다를 환하게 밝히는 은빛 '어화(漁花)'가 장관을 이룬다. 제철을 맞은 수백 척의 오징어잡이 배들이 집어등을 드리우며 바다를 불태운다. 고깃배들의 불은 검은 바다 위에 가득 핀 노란 꽃 같다. 울릉도 저동항의 '저동어화(苧洞漁火)'는 옛날부터 '우산팔경(于山八景)'의 하나로 꼽혔다.



01

02

03

01 내수전에서 본 저동항.
02 울릉도는 곳곳에서 자연 건조 하는 오징어를 자주 볼 수 있다.
03 국물이 진하기로 유명한 태양식당의 따개비 국수.

쪽빛 바다, 거친 바위, 속 깊은 숲 군침 도는 울릉5미 맛보세요

울릉도는 먼 섬이다. 동해안에서 배로 바닷길을 3시간 이상을 헤쳐야 닿는다. 이 역시도 날씨가 도와줘야 한다. 태풍이나 폭우, 그리고 풍랑이 높으면 배가 출항하지 않는다. 그저 고약한 하늘을 원망하고 발길을 돌려야 한다. 혹 배가 뜨더라도 주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 흡족한 숙박이나 음식, 친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울릉도로 가는 배는 강원도 강릉항, 동해 묵호항, 경북 포항항, 울진 후포항 등 4군데서 출발한다. 어느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하더라도 울릉도 도착시간은 거의 낮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 강릉에서 출발하는 배는 저동항, 동해 묵호항과 경북 포항항에서 출발한 여객선은 도동항으로 들어선다. 배 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멀미 때문에 꽤 고생한다. 멀미가 심한 사람은 포항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는 게 낫다. 울릉도로 들어가는 선박 중에서 가장 크고 좋다.

풍경에 취해 울릉도의 길에 서다

울릉도 여행의 첫 시발로 일주도로를 달렸다. 도동을 출발해 남양~구암~학포~태하를 잇는 섬 남부 해안도로에는 거북바위, 사자암, 말바위, 코끼리바위, 만물상 등 동물 모양의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다. 태하에서 현포~천부~죽암~섬목을 잇는 북쪽 해안에도 악어바위, 곰바위, 삼선암 등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이 줄을 잇는다. 현포 앞바다는 이름 그대로 푸르다 못해 검은빛이다. 도로는 시속 40㎞를 넘지 못한다. 왕복 2차선에 몇몇 터널은 왕복 1차로다. 해안 절벽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길은 울퉁불퉁하다. 멀리 위로 기울어지듯 솟은 주상절리가 위협적이다. 섬목~내수전 구간은 깎아지른 절벽이어서 아직 길이 뚫리지 않았다. 2018년이면 일주도로가 완공돼 울릉도 전 해안선을 차로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울릉도의 속살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느릿느릿 걷는 트레킹이 제격이다. 길은 깎아지른 듯한 해안 벼랑길을 따라 이어진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올라서기도 한다. 오가는 길에 제멋대로 뻗은 나무와 야생화, 산나물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울릉도에는 태하등대 대풍감 길, 행남등대 가는 길, 내수전~섬목 옛길 등 3대 트레킹 명소가 있다. 개인 호불호가 있겠지만 최고의 절경은 대풍감 트레킹이다.

대풍감(待風坎)은 울릉도 서북쪽 태하리에 있다. 도동항에서 버스로 35분 걸린다. 옛날 돛단배가 드나들던 곳으로 바람을 기다리며 구멍을 뚫어 배를 매어뒀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이곳 절벽은 천연기념물 49호로 지정된 향나무 자생지다. 정상에서 바라본 인근 해안 절벽 풍광은 '우리나라 10대 비경'으로 꼽을 만큼 아름답다. 트레킹은 태하리 성하신당 옆 버스정류장에서 시작한다. 성하신당을 지나 마을 뒷산 길로 오를 수 있다. 정상까지는 약 1.5㎞, 성인 남자 걸음으로 40분 거리다. 오르는 길 내내 소나무와 동백나무가 지천이다. 때때로 동해가 옥빛을 뽐내 발걸음이 상쾌하다. 정상에서 태하등대까지는 10분 거리로 경사가 완만해 평지나 다름없다. 그 뒤쪽 나무데크를 따라가면 '대풍감 전망대'이다. 이곳에 서면 향나무 군락과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포구가 눈앞에 펼쳐진다. 그 너머로 굽이굽이 해안선이 이어진다. 태하등대길을 편하게 가려면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된다. 총연장 304m로 최대 각도 39도나 되는 가파른 경사를 6분 동안 올라간다. 20인승카 2대가 레일을 타고 기암과 숲으로 이루어진 산을 오르면 마치 암벽등반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행남등대 가는 길은 도동항에서 저동 촛대바위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다. 길은 절벽 사이 암굴로 들어갔다가 다시 벼랑을 탄다. 또 발아래 바다가 보이는 투명다리를 건너기도 한다. 날이 맑으면 먼바다는 명멸하는 물비늘로 반짝인다. 가까운 바다는 에메랄드빛을 띠기도 하고, 먹물이 짙게 밴 검푸른 바다 색깔을 토한다. 운이 좋으면 절벽에서 바다를 향해 떨어지듯 날아가는 괭이갈매기를 볼 수 있다. 도동항에서 행남등대까지는 1시간 30분, 행남등대에서 저동 촛대바위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 행남등대는 해발 108m 언덕에 솟아 있다. 등대 높이는 9.1m 날이 맑으면 독도가 보인다.

내수전~섬목 구간인 4.4㎞는 아직 일주도로가 나 있지 않다. 해안 절벽과 험한 산세 때문에 쉬이 길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풍랑으로 뱃길이 끊어지면 울릉도 주민들이 이용했던 산길이 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원시림으로 변한 옛길은 수풀이 울창하다. 이전에는 내수전 전망대에서 발걸음을 돌렸지만 트레킹 코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곳을 두 발로 걷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저녁에 태하 바닷가를 찾았다. '태하낙조(台霞落潮)' 역시 우산팔경 중 하나다. 동해 한가운데서 감상하는 낙조는 울릉도의 또 다른 운치를 느끼게 한다. 태하는 울릉도에서 보기 드문 몽돌해안. 쉼 없이 자갈돌을 굴리는 파도와 바람 소리가 맑고 투명하다. 새벽녘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망향봉 독도전망대에 올랐다. 창창한 동해 한가운데서 붉은 해가 홀연히 솟아오른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른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이곳에서 육안으로도 독도가 관측된다. 울릉도 한복판에 솟아오른 성인봉에는 원시 비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성인봉의 높이는 984m, 도동~안평전~성인봉~나리분지 코스는 반나절이 걸린다. 천연기념물인 원시림과 울릉국화, 섬백리향 군락을 지난다. 단풍 물든 숲에는 보리수나무 흰꽃과 마가목 붉은 열매의 은은한 향기가 가득하다. 맑은 날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울릉도를 둘러싼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나리분지는 울릉도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지면서 생긴 분화구. 이 같은 칼데라호에 사람이 사는 사례는 세계에 몇 안 된다. 겨울에는 눈이 3m까지 쌓인다.

'울릉 5미(味)' 허끝을 녹이는 감흥

울릉도에는 풍광만큼이나 먹을거리도 다양하다. 홍합밥, 울릉약소, 산채, 호박엿, 오징어뿐만 아니라 따개비, 독도새우, 자연산 회 등이 관광객의 군침을 돌게 한다. 울릉도는 해안을 빙 돌아 바위가 감싸고 있다. 그 바위는 한 꺼풀 포장돼 있는데 바로 홍합이다. 이 싱싱한 자연산 홍합으로 밥을 지으면 홍합밥이 된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도 홍합밥을 하는 식당이 있지만 울릉도 현지와 비교하면 격차가 난다. 조리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잘 손질한 홍합살을 반 또는 삼등분해 참기름에 볶다가 불린 쌀과 물을 넣고 지으면 그만이다. 간장에 갖은 양념을 섞은 양념장을 비벼 먹는다. 코끝으로 싱싱한 홍합의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면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다. 홍합밥과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는 따개비밥이 있다. 따개비는 갯바위나 암초에 붙어사는 1㎝ 크기의 회갈색 부착생물. 양식이 되지 않아 100% 자연산이다. 15분 정도 삶으면 알맹이와 껍질이 분리된다. 알맹이만 골라 밥을 지으면 연녹색의 차진 따개비밥이 된다. 양념장과 김 가루를 듬뿍 얹어 비벼 먹는다. 따개비 내장을 넣어 끓인 국물과 부지깽이 같은 울릉도 산채를 집어넣어 만든 칼국수도 별미다.

울릉도에 소가 많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렇지만 울릉도는 소의 천국이다.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에 힘입어 무려 575종의 자생목초가 자란다. 이 목초를 먹고 자란 소를 울릉약소라고 한다. 울릉군의 인증을 받은 식당에서 고기를 판다. "여느 소고기와는 육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울릉도 주민들의 주장이다. 식당에서 약소구이는 1인분(100g)에 2만 원, 약소불고기는 1인분(150g)에 2만1,000원 정도를 받는다. 등심으로 소고기를 맛보려면 칡소(호랑약소)를 권한다. 칡을 먹고 자라서 칡소가 아니라 몸 전체에 칡넝쿨 무늬가 있어 칡소라고 부른다. 일반 한우보다 마블링은 적지만 불포화지방산이 30% 이상 많아 더 담백하다는 평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1인분(120g)에 3만 원을 받는다. 최근 울릉도에서 도축한 소의 반 정도, 유통되는 소고기의 3분의 2 이상이 육지에서 들어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눈이 많은 섬 울릉도의 산나물은 눈 속에서 싹을 틔운다. 그래서 향기가 육지의 것과 다르다. 대부분 나물이 아닌 약초로 불린다. 가장 유명한 나물로는 취나물의 일종인 울릉미역취, 고사리의 한 종류인 섬부지갱이고비, 삼나물 등이 있으며 명이(산마늘), 전호, 땅두릅 등도 깊은 맛이 난다. 특히 삼나물은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고급 나물. 생김새가 닭가슴살 또는 소고기 사태 부위의 고깃결과 닮았다. 봄에 새순을 채취한 뒤 말려서 한 해 동안 먹는다. 초고추장에 무쳐 내기 때문에 '삼나물 회'라고 부른다. 쫄깃쫄깃하고 쇠고기 맛이 난다. 엉겅퀴국이 국으로 나오는데 울릉도의 엉겅퀴엔 가시가 없다. 나리분지에 산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여럿 있다. 도동에서 성인봉에 오른 뒤 나리분지로 내려오는 등산객들은 '삼나물무침'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기울인다. 산채비빔밥 1만 원, 산채정식 2만 원, 삼나물회 2만 원.

울릉도 호박엿은 주민들이 집에서 만들어서 이웃끼리 나누어 먹다가 지난 30~40년 전부터 관광객들에게 상품화되면서 지역특산물로 명성을 얻었다. 호박엿은 울릉도에서 생산한 순수호박이 30%, 옥수수 물엿 70%를 각각 배합해 만들고 있다. 호박엿은 원래 호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다. 19세기 초 울릉도 개척 당시 이주민들이 만들어 먹은 것은 호박엿이 아니라 후박엿이었다. 섬에 자생하는 후박나무의 진액이나 열매는 위장병이나 천식에 특효가 있다. 그런 것을 후박나무를 잘 모르는 외지 사람들이 후박엿과 발음이 비슷한 호박엿으로 부르면서 '호박엿'으로 퍼지게 됐다. 최근에는 후박나무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데다 호박이 값이 싸고 구하기도 쉬워 아예 호박만을 이용해 울릉도 특산 엿을 만들고 있다. 울릉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은 호박엿보다는 호박범벅이다. 늙은 호박과 팥, 찹쌀가루가 어우러진 호박범벅은 울릉도 전통 음식의 정수이다. 울릉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오징어다. 가을에는 살아있는 오징어, 겨울에는 말린 오징어가 인기다.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맛보면 육지에서의 오징어 맛이 허무해진다. 산오징어회는 오징어를 즐기는 가장 단순하면서 직접적인 방법. 초고추장을 가능한 한 적게 찍어야 오징어 살이 머금고 있는 바다 냄새를 깊게 느낄 수 있다. 겨울이 되면 저동항과 도동항에서는 난전(亂廛)이 사라지고 오징어 덕장이 늘어선다. 볕이 좋은 날에는 이틀이면 시판이 가능할 정도로 바짝 마른다. 금방 말린 오징어는 연회색을 띤다. 반건조오징어(피데기)는 굽지 않고 그냥 먹어야 살이 부드럽고 단맛이 더 잘 느껴진다.

01 울릉도의 대표 특산물인 호박으로는 여러가지 간식거리들이 만들어진다. 도동약수 공원으로 오르는 길에는 다양한 특산물을 팔고 있다.

02 울릉도 순환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해양절경을 감상 할 수 있다.
03 홍합밥을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보배식당은 해녀들이 잡아온 홍합과 울릉도 산지에서 채취한 나물들로 맛과 향이 일품이다.
04 도동약수 공원과 망향봉 정상까지 오르내리는 케이블카로 울릉도 시가지와 해안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주)삼표

(왼쪽부터) 허성회 차장, 박중건 차장, 손형주 부장, 윤정용 부장, 지규남 과장, 안상원 과장, 고서희 사원, 남윤식 과장, 주경청 감사, 민경식 차장, 강대홍 부장

역량 강화 워크숍, 감사인 역량 성장 계기 마련

삼표그룹 감사실은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대부도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그룹사 통합감사팀으로 주경청 감사 이하 삼표 감사팀 5명, 삼표동양시멘트 감사팀 4명, 경한 감사팀 1명으로 구성된 삼표그룹 감사실은 이번 워크숍에 전원이 참석해 관찰 및 추리 강화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단계별 팀/개인 미션을 진행하였다. 팀 미션은 '주경청 감사, 지규남 과장'팀이, 개인 미션은 '손형주 부장'이 각각 우승하였다. 주경청 감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감사인의 역량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실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주)삼표산업 IT부문

비콘을 활용한 입출 차량 관리 시스템 도입, 차량 운반 투명성 기대

삼표 IT부문은 지난 8월 삼표동양시멘트 차량의 입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Beacon)을 활용한 입출 차량 관리 시스템을 삼표동양시멘트 삼척·동해항에 도입했다. 비콘은 블루투스 4.0(BLE) 프로토콜 기반의 저전력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로, 특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항만청의 규제로 인해 원재료를 싣고 운반하는 삼표동양시멘트 차량의 입출 정보가 일일이 수기로 작성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항구와 공장에 설치된 AP 수신기를 이용해 비콘이 설치된 삼표동양시멘트 차량이 출입 지점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정보를 데이터화함으로써 차량이 항구에서 출발할 때와 공장에 도착할 때의 시간 차를 통해 차량의 중도 이탈을 확인·방지할 수 있다. IT부문의 임춘식 대표는 "비콘을 활용함으로써 자동화 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항구의 제약을 저비용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운반의 투명한 관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삼표산업

삼표산업, '빅데이터' 활용으로 기업 경쟁력 키운다

삼표산업 레미콘 사업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별 시장정보를 기반으로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온 레미콘 사업부는 MI팀과 사업부 전담 인력을 배치, 상호 효율적인 업무연계로 미래시장 예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해당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데이터 축적과 새로운 예측기법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레미콘 관리본부 송재철 상무는 "기존의 사후분석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정교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며 중장기 수요예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레미콘 사업부의 성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이앤씨(주)

백인혁 차장,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 수상

삼표이앤씨(주) 백인혁 차장이 지난 9월 8일 열린 제117주년 철도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은 우리나라 철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백인혁 차장은 철도궤도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영일 한국철도협회 회장을 비롯한 철도 종사자 3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백인혁 차장 등 8명이 대표로 장관표창을 받았다. 삼표이앤씨 강기동 대표는 "이번 수상을 통해 삼표이앤씨 궤도 분야의 저명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백인혁 차장의 노고에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자사에서 이와 같은 철도 관련 표창장 수상자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삼표피앤씨(주)

삼표피앤씨, 공동주택 지상층 PC화 실현으로 국내 PC 업계 선도

삼표피앤씨(주)는 지난 10월 7일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와 '공동주택 골조 PC화 공법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에서 가진 이 날 협약식은 삼표피앤씨(주) 최명식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으로 양사는 공동주택 지하 구조물 및 지상층 골조의 PC화 공법을 통한 성능검증, 현장 적용을 기반으로 한 시공성 및 경제성 평가 등으로 공동주택 골조의 PC화 공법을 공동 개발하고 이 기술의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 지정 및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 최명식 대표는 "향후 현대건설 연구개발 본부와 공동주택 골조 PC화 공법을 개발해 공동주택 지상층 PC 화를 실현하고 국내 PC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경한

경한·네비엔, 워크숍 통해 사업목표 달성 결의, 사업방향 공감대 나눠

경한·네비엔은 지난 7월 1일 삼표연수원(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사업목표 결의를 다지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박영동 대표이사를 비롯해 환경자원/하역사업부문 직원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전반기 실적을 돌아보고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중장기 사업방향을 함께 공유하며 향후 환경자원/하역사업부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대표는 "2016년 목표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함께 노력하고 향후 신규사업을 위해 서로 협력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자"라고 당부하였다.

(주)네비엔

네비엔, '분슬래그 환경표지인증' 획득, 폐기물처리비용 획기적 절감 기대

네비엔 환경자원사업부문 단양사업장은 지난 6월 22일 분슬래그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받았던 분슬래그는 시멘트 석회석 대체재로 인정받게 돼 취급이 쉬워지고 건축재료로써의 위상 또한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단양사업장은 폐기물처리비 최소화를 위해 분슬래그의 다양한 활용처를 지속해서 물색 중이며, 기존 처리 비용을 유가화하여 향후에는 수익 창출 모델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표지인증 획득은 해당 사업 진행 과정의 1단계로서 분슬래그의 향후 활용 가능성과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영동 대표는 "환경자원사업부문에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원가항목 중 하나인 폐기물처리비를 단양사업장 뿐만 아니라 타 사업장에서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 관련해 TFT(Task Force Team)를 구성, 중장기적 목표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네비엔, 추석맞이 지역사회공헌활동 참여, 모범·윤리기업 이미지 재확인

네비엔 당진사업소는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7일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는 불우이웃들에게 식료품 등의 선물을 전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명절 나기 지원 사회공헌활동'(당진시복지재단 주관)에 참여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네비엔은 이번 행사에서도 지역민들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다시 한 번 모범기업, 윤리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영동 대표는 "당진시와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 역시 크다"라며, "네비엔이 앞으로도 지역과 지역민에게 인정받는 기업으로 지금의 위상과 명성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삼표동양시멘트(주)

삼표동양시멘트, 안전체험장 교육으로 대상은 넓히고 만족은 높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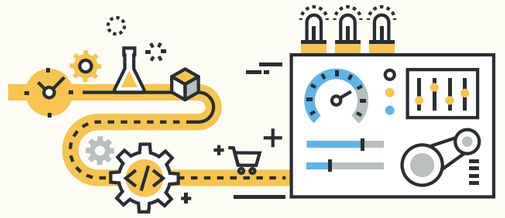
삼표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이 운영 중인 '안전체험장 교육 프로그램'이 관리감독자 703명, 협력 · 도급업체 518명, 계열사 관리감독자 112명 등 총 1,333명 수료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 임직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위험요소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 이를 통한 안전리더십 강화 등 무재해 달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안전체험장은 현재 안전, 보건, 소방 등의 테마로 전체 프로그램 중 80% 이상이 체험과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환경안전팀 박재호 부장은 "2016년 9월 현재 계열사를 포함해 재직 중인 전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종사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 중"이라며, "향후 체험교육 담당자 양성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 체험장 프로그램의 일부인 심폐소생술 마스터 과정을 관리감독자 및 협력, 도급업체 종업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방하여 사업장 내 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동양시멘트,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최우수', 보람과 자부심 '우뚝'

지난 7월 6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삼표동양시멘트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받았다. 삼표동양시멘트는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 그 결과 강원도 지역 최우수업체(2012년, 2013년) 선정에 이어 올해에는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상옥 삼척공장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협력업체 안전관리체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고, 특히 우리 공장의 사례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삼표동양시멘트는 이번 수상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삼척시(시장 김양호)에 향토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삼표동양시멘트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김수정 과장 선정, "전 임직원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

지난 7월 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제49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로 진행된 산업재해예방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삼표동양시멘트 삼척공장 환경안전팀 김수정 과장이 산업재해예방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이루어졌다. 김 과장은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재해 사업장 실현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전 임직원을 대신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힌 김수정 과장은 앞으로도 무재해 사업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했다.



함께 만드는 사람들

삼표그룹 사보는 계열사 곳곳의 소식을 전 그룹사에 전파하고자 사보 기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를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소속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삼표 홍보팀 **이소정 사원** sojeong@sampyo.co.kr / **레미콘** 삼표산업 레미콘기획팀 **한신 사원** hs1206@sampyo.co.kr
골재 삼표산업 골재영업팀 **장성현 사원** clzls77@sampyo.co.kr / **철도** 삼표이앤씨 경영기획팀 **전지혜 사원** jjh6906@sampyoenc.com
건설 삼표피앤씨 콘크리트기획팀 **이소영 사원** sso4942@sampyopnc.com / **분체** 삼표기초소재 분체기획팀 **박은지 사원** knam0908@sampyo.co.kr
철스크랩, 환경자원 네비엔 환경기획팀 **서동욱 과장** sdu2004@neven.co.kr / **IT** 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대리** dbswls1208@sampyoins.com
물류 삼표 물류기획팀 **황영만 대리** poireo@sampyo.co.kr / **시멘트** 삼표동양시멘트 인력개발팀 **최진호 대리** jinho.choi@tongyang.co.kr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신입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경한	영업2팀 울산	**장은철**	사원	2016.09.01
남동레미콘	광주영업소/공장 품질과	**박범길**	사원	2016.07.04
남동레미콘	동서울영업소/공장 영업과	**조형우**	사원	2016.08.08
네비엔	건조고화팀	**박동호**	기능	2016.09.19
네비엔	영업1팀 대구	**남대일**	사원	2016.10.26
네비엔	영업1팀 대구	**박정삼**	사원	2016.10.26
삼표	경영개선팀	**조힘찬빛**	사원	2016.09.01
삼표	물류기획팀	**구윤모**	사원	2016.09.01
삼표	삼척지사	**김지명**	사원	2016.08.01
삼표	홍보팀	**이소정**	사원	2016.10.13
삼표기초소재	분체기획팀	**이건희**	사원	2016.09.01
삼표기초소재	남부영업팀 김삼표동양시멘트 부산영업팀	**이한승**	사원	2016.09.19
삼표기초소재	사업지원팀	**송혜정**	사원	2016.08.16
삼표산업	강원영업소	**최준영**	사원	2016.08.08
삼표산업	골재생산지원팀	**한승웅**	사원	2016.08.08
삼표산업	골재영업팀	**이상윤**	사원	2016.09.19
삼표산업	김포공장 영업과	**김별이**	사원	2016.08.08
삼표산업	김포공장 품질과	**진병석**	사원	2016.09.21
삼표산업	대전영업소	**곽보철**	사원	2016.10.10
삼표산업	레미콘공장운영팀	**박종필**	사원	2016.09.19
삼표산업	몰탈영업2팀	**태인환**	사원	2016.07.04
삼표산업	설비1팀	**한종환**	사원	2016.10.10
삼표산업	설비보전팀	**이진수**	사원	2016.10.10
삼표산업	성수공장 관리과	**황대운**	사원	2016.08.01
삼표산업	안성공장 관리과	**유재민**	사원	2016.10.04
삼표산업	양주공장 품질과	**김정의**	사원	2016.09.21
삼표산업	영업1팀	**장수민**	사원	2016.10.10
삼표산업	영업2팀	**남한나**	사원	2016.09.01
삼표산업	용인광주사업소	**김정인**	사원	2016.09.19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강소망**	사원	2016.10.17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김영록**	사원	2016.10.17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김형광**	사원	2016.10.17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노민우**	사원	2016.10.17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문희수**	사원	2016.10.17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이태훈**	사원	2016.10.17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정재륜**	사원	2016.10.17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주동하**	사원	2016.10.17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최형우**	사원	2016.10.17
삼표산업	인천몰탈공장 생산팀	**염규호**	사원	2016.07.18
삼표산업	평택공장 품질과	**장민기**	사원	2016.07.04
삼표산업	포천사업소	**양욱재**	사원	2016.10.05
삼표산업	혼화제공장 연구개발팀	**강보훈**	사원	2016.10.17
삼표산업	화성공장 영업과	**이호빈**	사원	2016.08.08
삼표산업	화성공장 품질과	**양정훈**	사원	2016.07.04
삼표산업	화성몰탈공장 생산팀	**김승현**	사원	2016.09.01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생산팀	**노재원**	사원	2016.08.24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생산팀	**유승곤**	사원	2016.10.04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생산팀	**이승기**	사원	2016.10.04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생산팀	**허정관**	사원	2016.09.19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생산팀	**박인선**	사원	2016.09.05
신대원	예산사업소 생산팀	**한균성**	사원	2016.08.01
신대원	화성사업소	**한병산**	사원	2016.10.04
신대원	화성정비	**신정하**	사원	2016.08.08
팬트랙	연마유지보수팀	**이종석**	사원	2016.10.24

경력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삼표산업	안성공장관리과(출하)	**임대진**	과장	2016.10.01
경한	영업2팀_울산	**장은철**	사원	2016.09.01
경한	영업3팀_화성	**박민수**	사원	2016.07.11
남동레미콘	광주영업소/공장 영업과	**김종원**	사원	2016.07.04
남동레미콘	동서울영업소/공장 관리과	**김종용**	사원	2016.10.04
남동레미콘	동서울영업소/공장 관리과	**최진우**	사원	2016.09.01
네비엔	R&D팀	**박현철**	대리	2016.07.25
네비엔	R&D팀	**조경래**	차장	2016.08.01
네비엔	건조고화팀/현장	**박동호**	사원	2016.09.19
네비엔	건축/토목공사팀	**황성진**	과장	2016.09.05
네비엔	공사지원팀	**허경식**	과장	2016.07.07
네비엔	단양생산팀	**임갑철**	사원	2016.09.07
네비엔	자원영업2팀	**최명호**	과장	2016.10.04
네비엔	정비팀	**안중호**	사원	2016.09.19
네비엔	콘크리트 설계팀	**곽현승**	사원	2016.10.04
네비엔	포항공장 품질관리팀	**김세민**	대리	2016.08.16
네비엔	포항공장생산팀	**장민혁**	사원	2016.08.08
네비엔	포항공장품질관리팀	**김세민**	대리	2016.08.16
네비엔알이씨	SLAG처리팀	**장상진**	사원	2016.07.18
삼표	경영전략TFT	**정원용**	고문(비상근)	2016.07.01
삼표	부산지사 삼천포출하실	**김태호**	사원	2016.08.02
삼표	커뮤니케이션본부	**이종인**	부사장	2016.07.01
삼표	홍보팀	**정희록**	차장	2016.10.25
삼표	홍보팀	**최우석**	부장	2016.08.29
삼표산업	구매팀	**이지훈**	대리	2016.10.04
삼표산업	레미콘물류운영팀	**강성찬**	사원	2016.09.19
삼표산업	몰탈기획팀(장)	**이영진**	차장	2016.09.26
삼표산업	몰탈영업 1팀	**김완수**	사원	2016.08.08
삼표산업	서부공장 관리과	**강승식**	사원	2016.08.08
삼표산업	서부공장 관리과	**임부호**	주임	2016.08.16
삼표산업	서부공장 품질과	**이주현**	사원	2016.09.21
삼표산업	서부영업소	**이용운**	사원	2016.09.19
삼표산업	설비2팀	**최성민**	대리	2016.08.16
삼표산업	성수공장 관리과	**정진욱**	사원	2016.08.01
삼표산업	성수공장 영업과 겸서울영업소	**백영기**	사원	2016.09.19
삼표산업	송도공장 관리과	**차희준**	사원	2016.08.01
삼표산업	오산공장 관리과	**여충훈**	주임	2016.08.16
삼표산업	인천공장 관리과	**이동학**	사원	2016.07.04
삼표산업	인천몰탈공장 생산팀	**김규진**	사원	2016.08.08
삼표산업	인천몰탈공장 생산팀	**이정민**	사원	2016.10.04
삼표산업	인천몰탈공장 생산팀	**최원섭**	사원	2016.07.04
삼표산업	인천몰탈공장 생산팀	**최윤덕**	사원	2016.09.05
삼표산업	인천몰탈공장 품질팀	**조운진**	사원	2016.07.04
삼표산업	천안Slag공장 관리팀	**서동훈**	사원	2016.10.10
삼표산업	천안Slag공장 생산팀	**김범진**	사원	2016.08.24
삼표산업	청원공장 관리과	**이상범**	대리	2016.07.18
삼표산업	충무팀	**박인철**	주임	2016.09.19
삼표산업	충무팀	**한경록**	주임	2016.08.16
삼표산업	풍납공장 관리과	**김길현**	주임	2016.07.01
삼표산업	화성공장 관리과	**허원준**	사원	2016.09.21
삼표산업	화성몰탈공장 생산팀	**김성규**	주임	2016.08.08
삼표산업	화성몰탈공장 생산팀	**최영희**	사원	2016.10.24
삼표산업	화성몰탈공장 품질팀	**김경훈**	사원	2016.07.04
삼표산업	환경안전팀	**한용재**	사원	2016.07.11
삼표이앤씨	오송공장생산팀	**김해솔**	사원	2016.07.01
삼표피씨엔지니어	대표이사	**이강철**	상무	2016.10.20
삼표피앤씨	CS팀	**조성열**	부장	2016.07.25
삼표피앤씨	여주공장생산팀	**서동환**	사원	2016.10.04
삼표피앤씨	여주공장품질관리팀	**오청배**	차장	2016.10.10
삼표피앤씨	청주공장관리공무팀	**홍석진**	사원	2016.08.01
신대원	단양출장소	**주원천**	계장	2016.07.01
신대원	안성사업소 중기팀	**박문식**	계장	2016.08.16
신대원	예산영업소	**허철행**	사원	2016.09.19
신대원	예산정비	**김남규**	계장	2016.07.04
신대원	(주)신대원	**김명혁**	고문(비상근)	2016.09.01
신대원	중기팀 단양출장소	**김창근**	사원	2016.10.24
유니콘	기술영업담당	**황만호**	상무	2016.08.01
팬트랙	연마유지보수팀	**장창일**	과장	2016.10.24